

# 야당 “우물쭈물 능력대응에 사태 악화”...정부 ‘실기론’ 공세

### 야당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 취해야”

### 민주 “정치권 합심해야...정쟁 코로나19 극복 도움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정부의 한발 늦은 대응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불러일으켰다며 정부 실기론을 본격 제기하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협회가 중국발 입국금지를 제시한 시점이 무려 한 달 전이었는데 그 때 의협 말을 들었다면 사태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처주고 총리는 하나마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 입국을 금지시켰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여행경보 2단계로 올렸다”며 “우물쭈물 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전세계로부터 입국 금지 국가가 될지 모르니 통합당은 모든 역할을

위기극복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코로나 19가 17개 시도를 뚫었고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 사망자 6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은 마음대로 거리를 확보한다”며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를 취해라”고 촉구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 최고위원은 전날 정부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대해 “너무 늦었다”며 “심각한 상황을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것도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이 넘어서야 이뤄졌다”며 “열흘 전, 국내 방역이 안정적 단계라며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대통령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늦게나마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국가적 재앙으로 정부의 능력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한의협 등 방역 전문가들은 중국 입국금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외교관계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을 비행기째 돌려보내고 미국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한국여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만 중국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 커다란 잘못”이라며 “외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과 생명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조해 전면적 입국 금지 조처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에 정치권이 합심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쟁은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는 코로나19 추경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해 매우 엄중한 국면이 됐다.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정은 이번 주에 모든 가능 지원을 총동원해 코로나 확산의 고삐를 잡도록 노력하겠다. 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과 방역, 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떤 등을 향해선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공세가 심해질 때지만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당면과제, 국민 단합을 위협하면 안 된다”고 강조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추경에 속도를 내고 국회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경을 심사·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입법·예산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로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민생과 경제활력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와 협력 그리고 자신감

이라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강력한 대응에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위기극복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강화된 코로나19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히 추경 등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지력과 역량을 믿고, 반드시 감염병을 퇴치하는 시간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 민생당 출범...손학규·최경환·정동영 합당 의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 등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현 민주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24일 오전 합당을 선언했다. 신당 명칭은 민생당으로 정했다.

각 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등을 열어 지난주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차원에서 합의한 통합 합의문을 의결하고

수임기구 위원을 선임했다. 이어 3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최경환 대안신당·정동영 평화당 대표의 동의 하에 합당을 공식 의결했다.

손학규 대표는 3당 대표 합당 선언문에서 “이제 중도통합 정당이 국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적 열망을 가슴에 품고,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표는 “집권여당의 독선과 오만은 극에 달해 있고, 수구 보수세력은 ‘도로 탄핵 정당’으로 재질결했다”면서 “거대양당은 권력 다툼에 눈이 어두워 생존의 기로에선 우리 국민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거대양당 기득권 타파 의지를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치 구조 개혁은 중도통합 정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며 “통합당은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정치, 국익과 안보를 굳건히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정치를 국민 여러분 앞에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수임기구 합동회의는 각 당에서 합당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인사들이 참여해 실무를 최종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 각 당에서 5명씩 총 15명이 수임기구 위원으로 이날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신당 지도부는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 3명의 공동대표체제로 구성·의결됐다. 최고위원에는 이인희 바른미래당 당대표 비서실장, 황인철 대안신당 사무부총장, 이관승 평화당 사무총장이 올랐다.

## 박지원 “미래통합당 140석 가능 1당 바뀌고 국회의장도 놓칠 것”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민주당이 오만하다. 두고 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선전할 경우 1당이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해나가는 것을 보면 감동적으로 한다. 개혁공천은 오히려 (민주당보다) 통합당이 앞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아침에 보면 진보적인 경향신문에서도 ‘힘 빠진 민주당, 힘 받는 통합당’이라고 표현했다”며 “민주당은 지금 물갈이가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의 통합이 수도권에서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다

면 민주당은 하늘 쳐다보고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의석수를 최대 20석까지 가져갈 것이라는 위기감에 민주당도 ‘미래민주당’ 혹은 ‘미래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이제는 늦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거듭 “민주당은 실기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미래한국당을 지지한다면, 140석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 경우) 1당이 바뀌는 것이다. 국회의장 놓치고 1당이 바뀌면 대통령 임기는 2년 남았고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김윤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